

꽤 오래된 기억이지만 197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갔던 나에게 충격으로 여겨졌던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나라 뉴스나 대화 가운데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our country, our nation)라는 어휘를 별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갈등이 많은 나라,
인삼과 태권도 중심의 나라로
외국인의 눈에 비쳐지고 있는 한국.
중국이 商圏을, 일본이 자본과
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한국이 설자리는 어디인가?
스위스가 정밀공학분야로
살아남듯이 우리 한국은
온 국민을 과학기술에 매진케 하여
모든 國事가 그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金 學 銖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장)

그저 미국(U.S.A., America)으로 자기나라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아마도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로 대부분의 국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3인칭의 어휘가 보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1970년대 한국은 유신정권 아래에서 우리 식의 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거의 맹목적인 애국심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에 집착해 있었다. 어쨌든 가끔 1인칭의 ‘우리나라’보다 3인칭의 ‘한국’이 훨씬 유용한 어휘라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1인칭(우리나라)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3인칭(한국)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나, 「한국」이나

1994년 10월에 나는 동남아 4개국(인도네시아, 태일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여론 지도층(각국 6백명, 총 2천4백명)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조사를 집행하면서 또한 그 네나라들

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를 ‘한국’으로 바라볼 줄 아는 객관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었다. 남이 생각하는 한국을 알 때에만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이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에 눈돌릴 때가 되었다. 한때 아시아에는 일본만이 있었다던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중국과 대만이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된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다. 그러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동남아 국가들이 머지않아 우리의 주요 파트너가 될 것임이 확실하다. 어차피 한국은 미주대륙이나 유럽대륙과 다른 아시아대륙에 속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한국인은 아무래도 서구인보다는 아시아인에 더 가깝지 않은가.

동남아 여론지도층은 한국하면 생각하는 것으로 인삼, 분단, 서울, 전쟁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당시 가장 많이 들은 한국소식으로는 남북문제, 아시아게임, 핵문제, 학생시위 등이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남북대치 및 학생시위 등과 연관된 갈등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들 중에서는 태권도가 압도적으로 크게 인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인삼과 태권도가 동남아 여론지도층 사이에서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것들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국의 과학기술력과 경쟁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동남아 여론지도층이 자기나라의 수준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를 내리고 있었다.

한국 산업제품의 사용경험은 전자제품, 신발류, 의류 등이 주종을 이루었고, 이들을 사용한 이유로는 싼 값에 비해서 좋은 품질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산업의 광고들에 대한 접촉실태를 알아본 결과 현대, 삼성, 대우 등의 관련광고가 가장 많이 인지되고 있었다.

한국선호 4.7%에 그쳐

또한 동남아 여론지도층으로 하여금 일본 대비 한국평가를 요구한 결과 과학기술에 관한 한 그들의 64.6%가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경제력에서도 반영되어 응답자의 64.8%가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동남아 여론지도층이 동북아국가중 가장 선호하는 나라에서도 그들의 73.6%가 일본을 뽑았다. 그리고 14.1%가 중국, 5.7%가 대만으로 총 20% 정도가 중국인 중심의 국가에 쏠려 있었다. 한국은 4.7%, 북한은 1.9%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국의 참모습을 알기 위한 것이다. 즉 앞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본이 동남아 여론지도층의 인식체계를 거의 점령하고 있다. 한국은 갈등이 많은 나라 아니면 인삼과 태권도 중심의 나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일본의 동남아시아 점령은 비단 제 2차 세계대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현재 동남아 전지역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가 연 7%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2천만의 인구를 가진 말레이시아가 연 8.6%의 경제성장률, 6천만 인구의 태일랜드가 연 7.4%, 그리고 6천6백만 인구의 필리핀이 연 4.1%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 있는 배경에는 순전히 일본의 자본과 기술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자본과 기술을 대여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일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모두가 창의력 길러야

동남아지역에서 이런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지배계층은 철저하게 중국계 사람들이다. 과거에 중국인들이 동남아국가들로 남하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상업활동에 집중한 결과 오늘날 토착인들을 훨씬 앞질러 경제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싱가포르의 독립에서 보는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태일랜드,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등에서도 중국계 사람들이 국가의 경제권을 거의 거머쥐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12억의 인구를 가졌으면서 연 11%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고 있는 모국 중국이나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대만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보다시피 동남아 여론지도층은 중국을 일본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 지역은 전적으로 중국인 중심의 화상권(華商圈)에 점령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상권(商圈)에서 중국

인, 자본(資本)과 기술(技術)에서 일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도를 쉽게 그릴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아니 한국인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일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질문이다.

실천은 어렵지만 해답은 간단하다. 4천3백만 인구 하나하나가 창의력을 기를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분야에서 독보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길만이 화상권(華商圈)과 자본력(資本力)을 극복하는 길이다. 기술이 앞서면 사람과 자본이 몰려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안그래도 허약한 국력을 무턱대고 모든 분야에서 분산시킬 수는 없다. 몇가지 특정 분야에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지갑을 동시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스위스가 거대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밀공학분야 하나로 살아 남은 지혜는 우리에게 무척 시사적이다.

한국은 결코 동아시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일본은 세계를 제패하였고 중국은 21세기 제패를 노리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업고서 그리고 특유의 중국인 상술(商術)을 가지고 21세기 도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인삼과 태권도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다. 그 모두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온 국민을 과학기술에 매진케 하는 일이다. 모든 국사(國事)가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아는가, 모르는가! **SD**